

#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The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Private Old Document DBs in Korea

강 순 애(Kang, Soon-Ae)\*\*

## ◁ 목 차 ▷

1. 서 론	3.1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
2. 민간 소장 고문헌의 정리와 DB 구축	3.2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시스템
2.1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	3.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왕실도서관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2.2 국립중앙도서관	3.4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 보시스템
2.3 한국국학진흥원	3.5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
2.4 한국학중앙연구원	4. 민간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
2.5 국사편찬위원회	5. 결 론
2.6 문천각	<참고문헌>
3.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간 소장 고문헌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민간 소장 고문헌의 정리와 DB 구축, 민간소장 고문헌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간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을 다룬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민간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책자목록으로 발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문천각은 서지, 해제, 원문의 이미지 및 text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에서는 목록기술의 부정확성, 고문서 기술 및 형식의 비표준화, 원문 DB 구축시 한자의 결락과 입력의 오류, 텍스트의 착락 및 시스템의 연계, 통합검색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공동활용 방안에는 고문헌자료의 정리를 위한 표준화와 기관간의 연계, 고문헌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7년 11월 1일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20일

의 서지DB와 원문의 text DB의 구축에서 정확한 서지정보와 원문의 입력 및 오류의 정정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 국립이 통합목록의 구축과 서지DB의 공동활용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정확한 서지정보 입력, 고문헌의 DB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고문헌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즉 가칭 KOBIN(Korean Old Books Information Network)의 설립 등이 제시되었다.

要語: 민간 소장 고문헌, 민간 소장 고문헌 DB,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

<ABSTRACT>

In this research, to investigate how to construct and commonly use private old document DBs in Korea, analyzed are: i) the processing and construction of private old document databases; ii) the problems and the methods of improving those DB systems; and iii) the common use of these DBs.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compilation of a nationwide bibliography of private old documents was first started by Kukhakjaryobojonhye(國學資料保存會) and the Bureau of Cultural Properties(文化財管理局), and the union catalog of nine volumes (韓國典籍綜合目錄) was published from 1986 to 1997.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Muncheongak have constructed and utilized their own databases of bibliographies, annotations, and images and texts of old documents.

In these databases, there were some common problems such as the inaccuracies of cataloging description, nonstandardized use of KORMARC formats and description rules, the errors in inputting texts, including the omissions of characters and texts, and the difficulties of linking and searching DBs. To settle these problems, some alternative pla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KORMARC format and description rules(draft) for archives should be revised to adopt a new standard such as KS editions, and all the institutions involved should thoroughly follow the standards, when creating bibliographic records and digitizing texts. Finally a government organization tentatively called "KOBIN" should be established to supervise all the procedures of creating records, building the integrated document databases and its union catalog, developing technology for sharing digitized resources, training the specialists, and cooperating with the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Key words: Private Old Documents, Private Old Documents DB, Private Old Documents DB Systems

## 1. 서론

한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고문헌자료의 정리를 위한 목록시스템의 구축과 원문디지털화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어 각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1997년에 5개 기관에 위임하여 시작하였지만 시범사업에 불과하였다. 고문헌의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차원의 지식정보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처리기법의 전산화를 주도하면서 2000년 11월13일에 고서용 KORMARC형식 및 기술규칙을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0-306호로 공포하였고(KS X 6006-6), 2004년 고서종합목록DB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지정되어 2005년부터 전국의 국공립도서관의 5개처, 대학 및 전문대학도서관 103개처, 박물관 연구소 및 기타 31개처, 사찰, 서원, 향교, 문중 83개처, 개인소장가 819명 등 총 1,041개 처 소장 고전적 약 223만 책에 대한 목록데이터를 종합목록으로 구축하고 원문DB까지 연계하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역사분야에서의 지식정보관리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하에 12개 전문정보센터 협의회를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소장 역사자료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적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고 중단되었다.

이에 비해 국가 또는 각 기관이 민간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고 있지만 DB구축

과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민간 소장 고문헌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민간 소장 고문헌의 정리와 DB 구축, 민간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간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민간 소장 고문헌의 정리와 DB구축

민간 소장의 고문헌이라 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국가 또는 각 기관이 민간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조사팀을 구성하거나 조사위원들에게 위임하여 목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책자목록으로 발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각 기관들이 그 특성에 맞게 현장의 자료를 조사해서 직접 목록을 작성하고 그 성과를 다각도로 활용한 다음 최근에 DB구축이나 공동자료의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문천각 등이다.

### 2.1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

1974년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한 한국전적종합목록의 작업이다.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는 한국전적종합목록의 작업이다. 전자의 경우는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개인 소장가가 지니고 있는 목록을 조사하여 완성하였다. 그 세별 목록은 <표 1>과 같다.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표 1>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의 한국전적종합목록 1-7집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분류체계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1집: 산기문고목록; 이검노 소장	동보존회, 1974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2집: 상대문고목록; 상대 소장	동보존회, 1974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3집: 완수문고; 성암문고	동보존회, 1974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4집: 성암문고; 조병순	동보존회, 1975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5집: 인수문고; 광거당 소장	동보존회, 1975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6집: 도남문고 등	동보존회, 1976	사부분류법
국학자료보존회	한국전적종합목록7집: 천혜봉	동보존회, 1978	사부분류법

다음은 문화재관리국 1986년부터 1997년까지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어 한국고문헌조사목록 제1집부터 9집까지 발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3개 직할시, 36개 시, 82개 군, 11개 면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별화하면 대학도서관 17(해군사관학교포함), 시립도서관 1, 박물관 13, 연구소 2, 국민학교 2, 고등학교 1, 군청 4, 군청공보실 1, 학생회관도서관 1, 국악원 1, 서원 18, 향교 27, 사찰 11, 기념관 12, 유림회 1, 종중 2, 서재 2, 개인 404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전 지역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별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재관리국의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1-9집

기관명	목록명	발행사항	분류체계	조사대상기관	조사문헌총계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1집: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동관리국, 1986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직할시(1), 시(3), 군(22): 대학도서관(3), 시립도서관(1), 박물관(2), 서원(7), 향교(3), 사찰(6), 기념관(2), 서재(1), 개인(120)	총계: 5,674종 19,613건 전적: 3,358종16,915책, 書跡: 384종704. 고문서: 1,932종 1,994건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2집: 충청남도	동관리국, 1988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시(4), 군(12): 대학도서관(1), 학과(1), 군청공보실(1), 국악원(1), 박물관(1), 서원(1), 향교(14), 기념관(3), 사찰(2), 개인(22)	총계: 7,785종 28,114건. 고문서: 639종 663건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3집: 강원도	동관리국, 1990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시(4), 군(9): 국민학교(2), 박물관(2), 향교(2), 군청(1), 종중(1), 기념관(1), 사찰(1), 개인(34)	총계: 1,501종 7,756건. 전적: 1,386종 6,390책. 고문서: 115종1,366책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4집: 전라북도	동관리국, 1990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시(2), 군(5): 대학도서관(2), 박물관(1), 서원(2), 향교(1), 개인(19)	총계: 3,442종 20,000건. 전적: 3,406종 17,908책. 고문서: 36종 2,092장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5집: 안동시·군(상)(하)	동관리국, 1991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시(1), 안동군: 읍(1), 면(11): 대학교도서관(1), 개인(88)	총계: 33,162 전적: 30,467 고문서: 2,695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6집: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동관리국, 1992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직할시(1), 시(2), 군(13): 대학교도서관(3), 광주학생회관도서관, 박물관(2), 서원(3), 향교(3), 기념관(2), 개인(41)	총계: 24,779 전적: 21,210 고문서: 3,569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7집: 부산직할시	동관리국, 1993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직할시(1): 대학교도서관(3), 박물관(3), 연구소(2), 고등학교(1), 향교(1), 기념관(1), 개인(1)	총계: 4,375종 16,901건 전적: 4,365종16828책, 고문서: 10종73장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8집: 경상남도	동관리국, 1994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시(8), 군(16): 사관학교(1), 군청(3), 서원(5), 향교(4), 중학교(1), 향릉(1), 사찰(2), 기념관(1), 서재(1), 개인(56)	총계: 5,310종 18,974건, 전적: 5,176종 18,318책, 고문서: 134종 666장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9집: 충청북도, 제주도	동관리국, 1996	각지역별 서명의 가나다순	시(4), 군(4): 대학교도서관(3), 박물관(2), 기념관(2), 유품회(1), 종중(1), 개인(23)	총계: 1,110종, 5,176건(총 북: 719종 3,972건, 제주 도: 391종 3,972건)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한 것은 우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목록조사를 하였고, 이어서 전국규모로 공공기관과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의 서지목록조사와 책자목록의 발행이었다. 이 사업은 더 구체화되어 목록 DB와 원문구축사업으로는 진전되지 않았다.<sup>2)</sup>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어 발전하면서 일반 고문헌보다는 국가문화유산종합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가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1997-2010)’의 일환으로 2001년 5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국가문화유산정보시스템은 전국 26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정보화 촉진 기금의 재원으로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9개 국립지방박물관, 7개 공립박물관, 8개 대학박물관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26개 박물관의 소장 유물 등 10만점에 대한 문화재 소개정보와 사진정보, 3차원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전국의 중요문화재에 대한 포털 사이트 구축, 사이버 박물관 운영,

2) 강순애, “한국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1997. 12). 83-92.

문화재 및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검색, 전국 박물관 소장유물의 표준유물관리체계 구축하여 우리나라 250여개 국립, 공·사립·대학박물관 및 전국의 문화재정보를 종합네트워크로 구축, 범국가적으로 국가문화유산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sup>3)</sup>

## 2.2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도에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하 한고목으로 함)을 1차로 개발하고 정보통신부로부터 2005년도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받아 한고목을 구축 실현하게 되었다. 한고목이란 한국 고전적에 대한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고전적 소장처를 연계하여 관련기관 및 담당자로 하여금 목록 데이터 및 표준화된 목록DB 구축을 용이하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2005년도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규장각 등 28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서목록 DB 312,052건을 제공받았다. 2006년도에는 성암고서박물관 등 22개 기관으로부터 고서목록 89,252건과 원문이미지 35,615건을 제공받아 종합목록으로 구축하였다. 2007년 현재 각 기관으로부터 목록을 제공받아 종합목록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2005년~2007년 현재 416,397건의 고문헌 목록을 구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민간 소장의 고문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성암고서박물관의 목록 3,301건을 구축하였고, 2007년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 고서 1,300책을 구축하였으며, 이들 목록은 한고목에 종합목록으로 구축되었다. 이 종합목록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원문을 제공(3만5천)하고 있다. 또한 민간 고문헌을 수집하고 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경상대 문천각은 구축된 DB의 일부를 한고목의 종합목록에 제공하여 통합 연계하고 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 DB 구축기관 민간고문헌 기관 현황은 <표 3>과 같다.

3) 강순애, “한국의 지방사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4집(2006. 9). 26-28.

<표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 DB 구축기관 민간고문헌 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2005	2006	2007
1	가톨릭대도서관(성신교정)		991	
2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491	524	
3	경기대학교 도서관			9,080(예정수,구축중)
*4	경상대 도서관	11,946	5,452	2940
5	경희대도서관		3,908	
6	계명대 동산도서관	16,223		
7	고려대도서관		19,338	
8	국립중앙도서관	73,496		
9	국민대 성곡도서관		3,420	
10	국회도서관	2,900		
11	단국대 율곡기념 도서관	4,386		
12	단국대 퇴계기념 도서관	3,294	1,299	
13	대구 가톨릭대 도서관	6,172		
14	대구시립중앙도서관			746
15	대전가톨릭대도서관		75	
16	동국대 경주도서관	7,398		
17	동국대 중앙도서관	20,000	7,665	
18	동아대 도서관	0	4,336	
*19	민족문화발전연구소 한알		103	
20	부산대 도서관	3,699	3,833	
21	부산시립시민도서관			1,127
22	서울대 규장각	28,537		
23	서울대 중앙도서관		8,017	
24	성균관대 존경각	11,538		
*25	성암고서박물관		3,301	
*26	송광사 성보박물관			275
27	숙명여대 도서관	2,725		
28	숭실대학교 도서관			499
29	안동대 도서관	3,735		
30	연세대중앙도서관		6,174	
31	영남대 중앙도서관	19,361		
32	용인대 중앙도서관	3,003		
33	울산대 중앙도서관	160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34	원광대 중앙도서관	6,365		
35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2,112	2,054	
36	인하대 도서관		1,133	
37	장로회대 도서관		148	
38	전남대 중앙도서관	7,766	9,054	
39	전북대 도서관		3,415	
40	전주대 중앙도서관	2,518	68	
41	조선대 중앙도서관	4,865		
42	중앙대1캠퍼스 도서관	1,011		
43	충남대 중앙도서관	12,862	4,944	
44	충북대학교 도서관			202
*45	한국국학진흥원	22,728		
*4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5,201		224
47	한양대 백남학술 정보관	7,560		
합계		312,052	89,252	15,093

※ 번호 앞에 \*표시를 하고 음영 처리한 부분은 민간고문헌을 수집 전산화한 기관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영인조사 사업을 통해 1982년부터 2006년까지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2,352종 6,884책을 영인하였다.(마이크로필름 4,143롤, 종이 2,678책) 2007년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 소장 『海東諸國紀』 등 희귀고서 500여 책을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원문 DB화 작업중에 있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의 영인조사 사업을 진행한 26개 기관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영인조사 사업 현황(1982년~2006년, 26개 기관)

연도	영인처	영인 종책수	비고
1982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89책(MF)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160책(MF)	249책	프랑스
1987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西湖古事」 등 91종 230책	91종 230책	日本
1988	靜嘉堂文庫 「溪上雜錄」 등 28종 270책(MF) 尊敬閣 「標題音註東國史略」 등 16종 110책 內閣文庫 「歷代世年歌」 등 21종 220책	65종 600책	日本

1989	東京大學阿川文庫「鄭文翼公遺稿」 등 18종 51책 蓬左文庫「聽訟提綱」 등 27종 77책	45종 128책	日本
1990	東京大學阿川文庫「反正錄」 등 76종 175책	76종 175책	日本
1991	東京大學阿川文庫「三國史略」 등 42종 72책 東洋文庫「書經疾書」 등 40종 78책 天理大今西龍文庫「廣進帖」 등 179종326책	261종 476책	日本
1992	學習院大學圖書館「戶籍大帳」 등 45종 48책	45종 48책	日本
1993	東洋文庫「朴定齋日記」 등 46종108책 杏雨書屋(三木榮文庫)「胎產要錄」 등 13종 19책 龍谷大「最上大乘金剛大教寶王經」 등 15종 55책 東京大總合圖書館「東史合編綱目」 등 1종 33책	75종 215책	日本
1994	東洋文庫「嶠省勝覽」 등 8종 89책 岩瀬文庫「桑韓往復書牘」 등 26종 65책 大谷大學「辨正論」 등 7종 38책 靜嘉堂文庫「嘉覽襍聚」 등 37종 88책	78종 280책	日本
1995	(미국)버클리대「錦營錄史」 등 248종380책(MF 49롤) 杏雨書屋「辛卯式年司馬榜目」 등 18종 28책 靜嘉堂文庫「青海伯世家」 등 8종 16책 早稻田大「必有所濟」 등 8종 31책 駒澤大「北關重建歌」 등 9종 28책 靜嘉堂文庫「三韓紀事」 등 29종 55책	320종 538책	日本 美國
1996	(中國)北京大學「杜工部草堂詩箋」 등 29종 199책(MF 10롤)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喪禮備要」 등 34종 269책 天理大學「佛祖三經」 등 100종 151책	163종 619책	日本 中國
1997	京都大學 河合文庫「各房房稅冊」 등 140종 218책 東北大學附屬圖書館「三國史記」 등 49종88책(MF 15롤)	189종 306책	日本
1998	宮內廳書陵部「醫方集略」 등 5종 269책(MF 41롤)	5종 269책	日本
1999	蓬左文庫「三峰先生集」 등 26종 361책(MF 52롤)	26종 361책	日本
2000	京都大學 河合文庫「禮記臆」 등 184종 411책(MF 41롤)	184종 411책	日本
2001	國立國會圖書館「韓客贈答」 등 22종 58책(MF 5롤) 公文書館(內閣文庫)「三國志」 등 5종 109책(MF 13롤) 筑波大學「大典詞訟類聚」 등 14종 54책(MF 14롤)	41종 221책	日本
2002	프랑스동양언어문화학고「文選」 등 505종 1,192책(MF 145롤)	505종 1,192책	프랑스
2003	宮內廳書陵部「東萊先生十九史詳節」 등 140종 379책(MF 33롤)	140종 379책	日本
2004	宮內廳書陵部「한국인세」 등 59종 205책(MF 28롤)	59종 205책	日本
2005	國家圖書館「오산세고」 등 43종 205책(MF 48롤)	43종 205책	臺灣
2006	議會圖書館「연행일기」 등 114종 497책 - 추진 중	114종 497책	美國
합계	26개처 2,352종 6,884책(마이크로필름 4,143롤, 종이 2,678책)		

### 2.3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료를 수집·보존하여 훼손 및 멸실을 예방하고, 미공개 자료를 조사·발굴하여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곳에 기탁된 국학자료는 연구사업의 토대로 추진되는 한편, 귀중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인 및 DB화하여 학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소장 국학자료 보존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4)</sup> 기탁된 국학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목록집으로 간행되었고, 그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목록집과 자료집은 전국의 대학도서관과 국공립도서관 및 국학 관련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문중 및 개인 소장자로부터 국학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하는 '위탁관리방식'에 의해 고문헌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고서, 고문서, 목판 등 약 21만여 점에 이르는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들 자료는 현대적인 보존 시설을 완비한 수장고와 장판각에 보관·관리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기탁 자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자료의 총계는 현재 정리되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5> 한국국학진흥원의 기탁 자료 현황(2007년)<sup>5)</sup>

연도	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기타	계
2002년	6,402	8,231	10,840	31		56	25,560
2003년	25,495	32,727	18,276	118		278	76,894
2004년	16,981	17,121	9,359	56		302	43,819
2005년	9,877	20,864	8,870	75	119	353	40,158
2006년	6,088	8,408	4,228	69		393	19,186
2007년	4,767	6,737	2,071	26		608	14,209
합계	69,610	94,088	53,644	375	119	1,990	219,826

4) <http://www.koreastudy.or.kr/pdf/news/presentcondition2007.pdf>

5) 이육, "韓國國學振興院의 古文書 수집·정리의 실제와 과제," 『고문서연구』 제31호(2007. 8). 52-55.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위의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서, 고문서, 목판 등 기탁 받은 국학자료의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지원으로 2000년도에 1차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6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예산을 투입해 문집, 고문서, 일기류 등 국학자료를 이미지, 원문, 서지, 해제 등의 형식으로 디지털화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는 제7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0년부터 6차 년도에 걸쳐 구축한 소장자료 DB현황을 보면, 문집자료는 1,328종 3,503책이며, 도산서원 및 명문가 기탁 고문서 27,897종 40,607점, 일기류 599종 등이 DB로 구축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의한 전산화 외에도 매년 자체예산을 투입해 소장자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전산화 자료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남사람문집'은 퇴계학과 유학자들 문집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총 1,328종 3,503책의 서지와 해제정보를 갖추고 있는데, 이 중에서 1,912책은 본문 이미지로 구축되었고 972책은 텍스트로 구축되어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다.

'문집 상세해제'는 교육부 국학진흥사업 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문집 상세해제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다. 현재까지 92종의 문집해제가 포함되어 있다. 시문을 제외하고 문집내 모든 기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해제를 붙였으므로, 이 상세해제를 보는 것만으로 문집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학술적인 기여가 클 것이다. 특히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관심 있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서 전통문화의 대중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사람일기'는 국학진흥원 소장 일기류 사료 599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이다. 국학원 소장 일기류는 대부분 미공개 필사본 형식의 자료로서 조선시대 재지 사람들의 각종 공사(公私)의 삶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도산서원 고문서’는 도산서원 광명실에 소장되어 전해오던 도산서원 관련 문서 2,500종 13,238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전장기, 노비안, 매매문서 등 서원 운영의 경제적 토대를 보여주는 자료는 물론이고, 원임록, 유원록 등 서원의 제도적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 통문, 간찰, 일기류 등 서원의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명문가 고문서’는 국학진흥원 소장 명문가 고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 고문서는 조선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코드인 ‘유교’가 단순한 통치이념의 차원을 넘어 향촌사회의 기층질서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원리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005년 말 현재까지 재령이씨 영해파 종택 등 총 14개 영남지역 명문가 고문서 20,555종(27,407면)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 디지털국학실에서는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모든 기탁문중의 고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 2.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국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원, 향교, 사찰, 문중,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양은 고문서 35만여 점, 고서가 33만여 책에 이른다(2002년 9월 기준). 이중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고문서집성」 80여권을 간행하여 민간자료발굴과 고문서연구에 크게 기여했다.<sup>6)</sup>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국가적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문헌 기증·기탁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문시설을 갖춘 400평 규모의 ‘고문헌 기증·기탁실’에 과학적인 항온항습 시설 등을 완비하고 중요 자료는 전문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기증·기탁된 자료는 28개 문

6) 李鍾默, “藏書閣 및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 「국내외 한국학 자료의 보존실태와 전망」, 37-63.

중에 27,000여점에 이르고 있다. 기증·기탁된 자료 중 중요 자료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소장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학술적 자료로 보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기증·기탁된 자료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기탁된 자료의 현황(1997-2007): 28개 가문 27,591점(책)<sup>7)</sup>

연도	기증기탁가문	점수 / 책수		
		고문서	고서	유물
1997	전주유씨	2,498	137	
2001	반남박씨, 광주안씨, 해남윤씨, 청양김씨 등	797	278	
2003	진주유씨, 경주손씨, 전주이씨, 전주유씨, 진주정씨 등	3,920	2,365	
2004	안동장씨, 고성이씨, 안동김씨 등	6,214	1,351	51
2005	초계정씨, 무안박씨, 안동김씨, 의령남씨, 진주유씨, 여주이씨 등	4,252	769	223
2006	의성김씨, 밀성박씨, 청주곽씨, 경주김씨 등	1,892	1,282	300
2007	풍양조씨, 원주이씨, 여주이씨 등	1,071	163	28
합 계		20,644	6,345	602
		27,591		

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사업 관리를 전담한 지식정보 관리사업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8차례 참여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참여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藏書閣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하 ‘장서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구축사업을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보유한 한국학 관련 주요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보존하고 인터넷 서비스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서각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10개 분야의 한국학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장서각 고서, 수집고서, 장서각 고문서, 27개 가문의 고문서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관련 자료, ‘한국방언자료집’ 논취자료, 민요 관련 녹취 자료,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미수록 도판 자료 등 9개 분야의 주요 자료와 민요

7) 安承俊, “韓國學中央研究院의 古文書 調査·整理 現況과 課題,” 『고문서연구』 제31호 (2007. 8), 93-94.

전문가들이 제공한 한국민요 관련 녹취자료 등의 10개 분야이다. 본 논고에 해당하는 것은 수집고서와 장서각 고문서이다. 수집고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원 이후 구입했거나 기증 받은 도서이다.

장서각 고서 DB 구축 대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978년 6월 30일 개원한 이후 1989년 12월 말까지 수집 정리한 고서 자료와 원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지 않았지만 고서를 촬영한 MF 필름 자료이다. 2006년 12월까지 12,500종, 23,794책의 원문이미지 256만면과 1,323종 4,209책의 텍스트 정보, 1,038종의 고서 자료에 대한 해제를 장서각 고서 DB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수집고서의 이미지 디지털화 진척율은 <표 7>과 같다.

<표 7>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집고서의 이미지 디지털화 진척율

장서구분	사부분류	분류기호	총수	목록자료총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화 진척률(%)
수집고서	경부	A	714	714	305	42.7%
	사부	B	2,412	2,412	1,160	48%
	자부	C	1,588	1,588	848	53.4%
	집부	D	4,139	4,139	1,707	41.2%
합계			8,853	8,853	4,020	

고문서 DB 구축을 살펴보면 대상자료는 장서각에 수장된 고문서 자료와 1990년대 고문서 수집 사업으로 수집한 전국 명가 소장 고문서 중 27개 가문의 고문서 자료를 디지털화 하였다. 장서각 소장 고문서는 4,575점의 원문이미지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전국 명가의 고문서는 27개 가문 19,166점의 원문이미지, 8,699점의 원문텍스트, 9,655점의 해제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다. 전국 명가별 고문서에 대한 원문 이미지 디지털화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국 명가별 고문서에 대한 원문 이미지 디지털화 현황

대상가문	이미지
거창 초계정씨 동계종택(居昌 草溪鄭氏 桐溪宗宅)	222
경주양동경주손씨서백당(慶州良洞慶州孫氏書百堂)	337
경주양동경주손씨서백당2(慶州良洞慶州孫氏書百堂2)	190
경주김씨직각종택(慶州金氏直閣宗宅)	352
경주최씨용산서원(慶州崔氏龍山書院)	2823
광주안씨순암종택(廣州安氏順菴宗宅)	346
나주회진나주임씨창계후손가(羅州會津羅州林氏滄溪後孫家)	523
대전안동김씨김영한소장본(大田安東金氏金英漢所藏本)	270
무안박씨무의공종택(務安朴氏武毅公宗宅)	1947
밀양밀성박씨(密陽密城朴氏)	1239
법흥고성이씨문서(法興固城李氏文書)	297
상주연안이씨식산종택(尙州延安李氏息山宗宅)	223
상주우산진주정씨우복종택(산수) (尙州愚山晉州鄭氏愚伏宗宅(山水軒))	1173
안동갈전순흥안씨정봉종택(安東葛田順興安氏定峯宗宅)	421
안동광산김씨후조당(安東光山金氏後彫堂)	943
안동수곡전주유씨무실종택(安東水谷全州柳氏무실宗宅)	197
안동김씨노가재(김창업)후손가(安東金氏老稼齋(金昌業)後孫家)	68
안동김씨삼당(김영)후손가(安東金氏三塘(金瑛)後孫家)	209
여주이씨옥산정사(독락당)고문서(驪州李氏玉山精舍(獨樂堂)古文書)	1002
의정부반남박씨서계종택(議政府潘南朴氏西溪宗宅)	386
인동장씨여현종택(仁同張氏旅軒宗宅)	1569
주촌진성이씨문서(周村眞城李氏文書)	1020
진양하씨단지종택(晉陽河氏丹池宗宅)	8
진주단목진양하씨단지종택(晉州丹牧晉陽河氏丹池宗宅)	522
진주류씨모산종택(晉州柳氏帽山宗宅)	1234
함양박씨구당종택고문서(咸陽朴氏九堂宗宅古文書)	358
해남윤씨연동종택(海南尹氏蓮洞宗家)	1509
합계	19166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서 수집 사업의 결과 보고서인 「古文書集成」은 위에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7 현재 제 87집까지 간행되었다. 古文書集成은 책으

로 먼저 간행한 후에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서각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책자에 수록하지 못한 고문서 자료에 대해서도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 서비스하고 있다. 책자와는 달리 고문서 원본의 천연색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원본을 직접 대하는 것처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탈초 작업도 진행하여 자료 검색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古文書集成』에서는 대상 가문에 대한 전체 해제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서각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가급적 개별 고문서마다 간략한 해제를 작성하였다.

## 2.5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에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고문헌을 영인 간행하고, 국내외 각종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국내사료 수집·정리를 위해 지방사료조사위원회 485명을 운영하고 있다. 수집자료는 분석·정리·등록 후 인터넷으로 공개 및 자료집을 간행하고 있다. 수집자료 간행은 『韓國史料叢書』를 1955년부터 계속 간행하고, 『韓國現代史資料集成』을 1986년부터 간행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80년대부터 역사자료를 전산화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9년 ‘전산화 추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전산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였다. 1999년 ‘한국역사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00년 9월 정보통신부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역사자료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편은 마이크로필름을 총 18,435롤 342,442건을 구축하였는데, 그중 고문헌과 관련된 것은 고문서목록 64,208, 고서목록 15,275, 귀중본목록 89, 대마도종가문서목록 27,620 총 107,192의 목록DB가 구축되어 있다.<sup>8)</sup>

국편이 운영하는 한국사 DB에서는 수집·소장처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원문

8) <http://mf.history.go.kr/> 에서 국내자료 열람에서 제공하는 자료유형을 참고하였고, 대마도종가문서 중에서 회화류는 제외하였음.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DB 원문 텍스트 제공 자료 목록

자료명	비고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제1권)	전남구례 黃渭顯 소장자료(원본), 전남남원 朴政植 소장자료(부분)
매천야록국역(한국사료총서제1권국역)	
기려수필(한국사료총서제2권)	경북영주 宋仁嬭 소장자료
해학유서국역(한국사료총서제3권국역)	
위암문고(한국사료총서제4권)	張在軾 소장자료
대한계년사(한국사료총서제5권)	李秉岐 소장자료
민중정공유고(한국사료총서제7권)	閔丙岐 소장자료
임술록(한국사료총서제8권)	金約瑟 소장자료, 고려대학교·구황궁·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수신사기록(한국사료총서제9권)	李瑄根 기증자료, 고려대학교 소장
동학난기록(한국사료총서제10권)	전북지역 수집자료, 서울대학교 도서관·고려대학교 소장자료
속음청사(한국사료총서제11권)	金周龍 소장자료
심산유고(한국사료총서제18권)	金槐 수집 편집자료
윤치호일기(한국사료총서제19권)	尹永善 소장자료
윤치호일기서한집(한국사료총서제19권)	金炯燦 수집자료 및 尹永善 기증자료
여지도서(한국사료총서제20권)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서울대학교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보충)
청우일록(한국사료총서제22권)	李瑄根 소장자료
한계유고(한국사료총서제23권)	李葵錫 소장자료
봉서·봉남일기(한국사료총서제26권)	韓國古文研究會 邊時淵 소장자료
나암수록(한국사료총서제27권)	慶北 醴泉 味山古家 소장자료
일신(한국사료총서제28권)	장서각 소장자료
관동창의록(한국사료총서제30권)	閔丙千 소장자료
향산일기(한국사료총서제31권)	
도동연원록부·도암집(한국사료총서제32권)	吳德烈 소장자료
등사략(한국사료총서제33권)	李鎭澤 소장자료
조선사회사자료1(한국사료총서제34권남원)	남원지역 수집자료
조선사회사자료2상(한국사료총서제34권공주상)	공주지역 수집자료(공주향교)
조선사회사자료2하(한국사료총서제34권공주하)	공주지역 수집자료(공주향교)
츙계일기(한국사료총서제35권)	金英漢 소장자료
임진기록(한국사료총서제36권)	鄭完鎭 기증자료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용만문건록(한국사료총서제36권)	鄭完鎭 기증자료
용사잡록(한국사료총서제37권)	鄭完鎭 기증자료
계암일록상(한국사료총서제40권상)	경북 안동 金永倬 소장자료
계암일록하(한국사료총서제40권하)	경북 안동 金永倬 소장자료
목재일기상(한국사료총서제41권상)	충북 괴산 李在寅氏宅 소장자료
목재일기하(한국사료총서제41권하)	충북 괴산 李在寅氏宅 소장자료
도재일기(한국사료총서제42권)	李建豊 소장자료
계일현일기(한국사료총서제42권)	李建豊 소장자료
잡기(한국사료총서제42권)	李建豊 소장자료
향병일기(한국사료총서제43권)	金澤鎭 소장자료
매월일기(한국사료총서제43권)	金澤鎭 소장자료
목재일기(한국사료총서제43권)	金澤鎭 소장자료
여운일기(한국사료총서제43권)	金澤鎭 소장자료
과현일기(한국사료총서제43권)	金澤鎭 소장자료
관란재일기(한국사료총서제44권)	鄭仁均 소장자료
우곡일기(한국사료총서제45권)	이주영 소장자료
야언기략(한국사료총서제45권)	오성근 소장자료
청대일기상(한국사료총서제47권상)	권순일 소장자료
청대일기하(한국사료총서제47권하)	권순일 소장자료
십원권일기상(한국사료총서제48권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소장자료
십원권일기중(한국사료총서제48권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소장자료
십원권일기하(한국사료총서제48권하)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소장자료

## 2.6 문천각

문천각은 경남지역 여러 문중에서 기증한 2만5천여점의 고문헌과 2만여권의 한적 영인본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최근 영구위탁된 것으로는 진양 하씨 단지공과 하순봉씨가 2007년 5월 문중 고문헌 4천여 점이 있다. 현재도 진양 하씨 문중에서 고문헌 기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리중이어서 현재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문천각의 고문헌 기증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문천각의 고문헌 기증현황

연도	기증자(문고명)	접수 / 책수		
		고서	고문서	책판
1989	최문석(아천문고)	3,314		
1991	곽 태(면우문고)	1,000		
1995	한 주(우산문고)	1,232		
1995	이은향(기리문고)	287		
1996	권영복(우천문고)	756		
1996	김상조(오림문고)	2,118		
2002	허영중(춘추문고)	1,737		
2004	김채갑(계남문고)	1,005		
2004	김동준(단계문고)	1,142		
2004	김포환(물천문고)	672		329
2005	김상원(이택당문고)			1,123
2005	박상호(청강문고)		3,000	
2005	정규섭(농포문고)	390	260	
2007	하순봉	557	2,997	
합 계		14,210	6,257	1,452
		21,919		

문천각에서 전산화한 고문헌 자료는 ‘남명학교문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명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남명학교문헌시스템은 경상대학교 문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 2만여권과 남명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南冥 曹植(1501-1572)의 학과 및 경상우도지역 유학자와 관련된 문집과 기록류 등을 엄선하여 350,000면 분량의 고서 원문 이미지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자료 열람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경상우도지역 유학자의 문집을 엄선하여 10,125,000자의 FULL TEXT 원문 DB를 구축하였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경남전역에 산재한 개인 및 문중소장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상우도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 제공 거점기관으로 특성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9)</sup> ‘남명학교문헌시스템’에

는 구축되어있지 않지만 문천각 소장 고문헌은 경상대 도서관에 MARC로 구축되어 검색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에 연계되어 통합목록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 3.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1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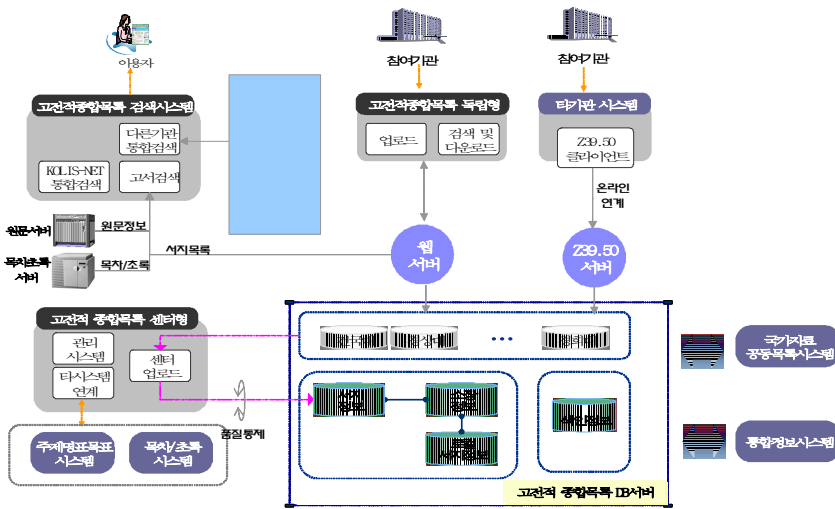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KORCIS로 칭함)은 KSC5601 기반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이하 KOLIS로 칭함)에 구축 운영 중인 고전적종합목록 DB를 유니코드 기반으로 변환 개발된 시스템이다. KORCIS는 독립형과 센터형의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CIS-센터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자관에서 기존의 KOLIS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서지정보, 소장정보, 도서관정보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KORCIS-독립형(KORCIS-NET라고도 함, 이하 KORCIS-NET이라 칭함)은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의 협의회기관 및 참여기관들이 사용하는 자관의 종합목록데이터관리시스템이다. 이를 부연하면 한국 고전적에 대한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고전적 소장처를 연계하여 관련기관 및 담당자로 하여금 목록데이터 접근 및 표준화된 목록DB 구축을 용이하도록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sup>10)</sup>

이러한 KORCIS의 센터형과 독립형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sup>11)</sup>

9) 최 식, “문천각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 제27호(2006), 33-34.

10) 국립중앙도서관, 2006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구축 완료보고회,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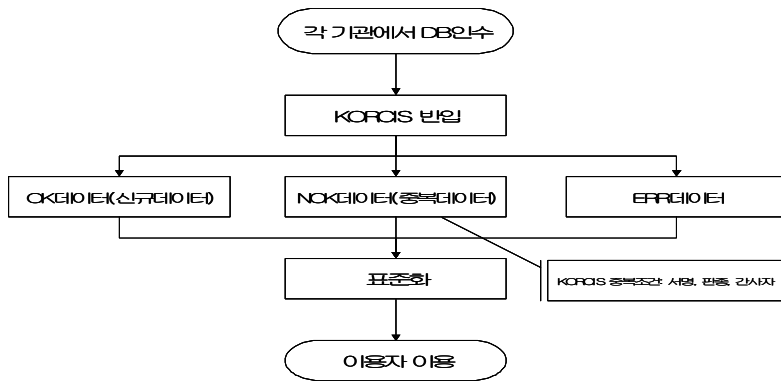
11) 국립중앙도서관, 2006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구축 완료보고회, 26.



<그림 1> KORCIS시스템 구성도

이러한 시스템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KORCIS의 업무 흐름은 1) 각 기관의 DB인수 2) KORCIS 반입 3) 데이터 판별 4) 표준화 5) 이용자 이용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를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듯이, KORCIS는 목록중심의 종합목록데이터관리시스



<그림 2> KORCIS 업무 흐름도

템이다. KORCIS를 통해 목록을 하는 과정에서 고서목록의 MARC데이터들이 수정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본에 의거하여 정확한 목록기술이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간의 업무협약이 매우 필요하다.<sup>12)</sup> 각 기관에서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구축된 원문, 해제 등의 DB를 연계하여 목록작업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고목에 구축된 원문 DB는 국립중앙도서관 것만 구축되어 있어 국중 원문 이외의 다른 기관의 원문을 이용할 수 없다. 각 기관은 서지(MARC) DB만 연계되어 있는데 원문과 해제를 연계하던가 아니면 구축된 원문의 有無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한고목에서 고문서의 DB 구축은 KORMARC-고서용-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KORMARC -고문서용-의 규칙 제정이 시급하다. 타기관 중 고문서 목록DB를 구축할 때 한국고문서학회에서 연구한 고문서(안) 규칙<sup>13)</sup>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목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이 있어 DB 연계 및 통합에 어려움이 많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그림 3>에서 <그림 6>까지는 각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고문서의 서지DB의 다양한 예시들이다.

표제/저작사항	[簡札] / 盧相稷(朝鮮) 受給 ; 盧相益(朝鮮) 發給
판사항	筆寫
발행사항	昌寧 : 盧相益 發給, 庚午(1930)
형태사항	1張 ; 17.5 x 54.0 cm
주기사항	行書 發給處: 昌寧 金面 發給日: 庚午(1930) 1.14 受給處: 密陽 丹場 말方 解題者: 權五根의 號는 井南이며 井南先生文集있음. (?-2003) 發給者: 盧相益의 字는 致三이고 號는 大訥이고 官職은 侍講임 受給者: 盧相稷의 字는 致八이고 號는 小訥임 韓紙(厚紙) 해제: 近日支衆이 不好한데 더구나 子息들이 悖德하고 孫자가 머리석은 것은 내가 客地에서 죽을 運命인가 십다 所托하는 君臣錄은 一冊으로는 보는 效과를 못 얻으리니 全帙 20卷을 囑當 보낸다 方今 漕漉로서 達樂에 濟미 必要하니 조금 求해 보내라

<그림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KORMARC -고서용-에 의한 정리안

- 12) 강순애, “한국 고문헌 정리에 있어서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및 형식의 적용과 실제,” 『古典籍』 3(2007), 39-44.  
13) 한국고문서학회 편, 『한국고문서기술규칙(안)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고문서용-』 (2003. 9), 15-45; 97-223.

서지내용	
문서명	석제등 9인이 문종 조상 추모 사업과 문집간행사안에 대해 갑술년에 보낸 간찰 開城高氏 鹿門宗宅 [簡札 1]
발급자	증하 석제 등 9인 宗下 稟濟 等 9人
수급자	미상 未詳
판사항	필사본
간지	開城高氏 鹿門宗宅
간자	開城高氏 鹿門宗宅
간년	연도미상
문서크기	31.0×43.6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원소장처	開城高氏 鹿門宗宅
고문서주제분류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 간찰(簡札) > 간찰(簡札)

<그림 4> 한국국학진흥원의 고문서 정리안

簡札 가+    가-    닫기

문서명	簡札
한글문서명	간찰
이명(한자)	
발/수/찬자	권면옥(權冕玉)/-(-)/권면옥(權冕玉)
발급목적	계축년에 외손(外孫)인 권면옥이 외조모의 상(喪)을 당하여 외가의 ○○○에게 올린 위문(慰問) 서찰(書札).
간행년(서기력)	-(- -)
크기	24.8×34.5
관인수	-
소장처	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	전라남도
소장처2	해남군
소장분류	
주제분류	書簡通告類, 書簡類, 簡札

<그림 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고문서학회의 고문서정리(안)

##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嘉慶 12年 林聖淵 准戶口

등록번호	MF0008495
자료유형	고문서
저자	
발급/수급	漢城府/林聖淵(30세)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자불명], 1807
형태사항	
촬영순서	048
촬영번호	99-3-689
주기사항	
내용	[No 43] 嘉慶十二年 月 日漢城府考丁卯成籍戶口帳內西部皇華坊小貞洞契第十九統第五戶住幼學林聖淵年二十戊戌生本蔚山父樂僑將軍行訓鍊院判官喜春福崇祿大夫行樂安郡守順天鎭管兵馬同僉節制使世載曾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尉都摠府副摠管天祥外祖樂僑將軍行武臣兼宣
소장자(처)	민병원
소장문서번호	97-지원-997

<그림 6>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문서 정리안

위의 <그림 3>부터 <그림 6>까지는 각 기관에서 구축된 고문서 서지DB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림 5>에 제시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학회에서 연구한 고문서정리(안)에 의거하고 있어 표준안 정립에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리안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의 표준안 제정을 주도하여 고문서 DB 구축에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3.2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시스템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유교넷(Ugyo net)시스템은 2000년부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지원과 자체예산 사업을 통해 꾸준히 축적해 온 유교문화 관련 다양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학술정보는 물론이고 대중적인 교양정보들이 연구자, 일반인, 청소년, 문중관련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되는 시스템이다.

전문적인 학술정보로는 ‘영남사림문집’, ‘문집상세해제’, ‘영남사림일기’, ‘도산서원 고문서’, ‘명문가 고문서’ 등이 ‘유교기록자료관’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자료 찾아가기’라는 메뉴를 두고 학술적 고문서분류가 아니라 알기 쉬운 생활사의 주제에 따라 관심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유교기록자료관’ 이외의 학술정보로는 유교문화권의 목판분포 현황과 목록 그리고 해당 목판으로 간행된 서적의 해제 등을 제공하는 ‘유교문화권목판’, 유교관련 60여종의 간행물을 전자책 형태로 가공한 ‘유교문화간행물’ 등이 있다. 이외에 일반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교양정보로는 선비의 하루, 멀티미디어 유물관, 플래시유교, 유교역사관, 유학인물 등의 콘텐츠가 있다.<sup>14)</sup>

위의 시스템중 ‘유교기록자료관’에 들어 있는 ‘영남사림문집’, ‘문집상세해제’, ‘영남사림일기’, ‘도산서원 고문서’, ‘명문가 고문서’ DB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영남사림문집’과 ‘영남사림일기’ DB는 서지, 해제, 책목록,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문집상세해제’ DB는 기본해제, 저자소개, 권차소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권차소개가 상세하게 서비스된다. ‘도산서원 고문서’와 ‘명문가 고문서’ DB는 서지, 해제, 기사본문, 기사목록, 이미지가 제공된다.

이러한 유교넷시스템에서는 text DB 구축에 있어 구두를 잘못 끊은 경우와 한자 입력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정확한 원문의 입력과 오류의 정정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sup>15)</sup>

둘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된 고문헌의 DB는 유교넷시스템에서는 이용이 되지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통합 검색이 되질 않는다. 한국국학진흥원이 한국고전적보존회의 회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고목에서 통합검색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 연계시스템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표준화를 통한 통합검색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3.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에는 ‘고도서’,

14) <http://www.koreanhistory.or.kr/intro/KSAC.jsp>

15) 이군선, “한국국학진흥원 전산화의 성과 한계,” 『한문교육연구』 27(2006), 151-161.

‘고문서’, ‘사진회화자료’, ‘음성자료’, ‘사전용례’, ‘부가정보’ DB를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고도서’ DB는 원문이미지, 본문텍스트, 해제 등으로 세분하였다. 각 도서는 서지, 해제, 이미지를 서비스하는데, 특히 해제는 간략 해제로 정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고문서’ DB는 문중고문서와 왕실고문서로 세분화하였다. 문중고문서는 형태, 제목, 가문별로 세분화하였고, 그중 형태는 敎令類, 疏劄啓狀類, 牒關通報類, 證憑類, 明文文記類, 書簡通告類, 置簿記錄類, 詩文類, 書畫類, 成冊古文書 분류되어 서비스된다. 각 문서는 서지, 해제, 본문, 이미지가 서비스되는데 이미지는 칼라이미지로 제공된다. ‘사진회화자료’ DB는 한국문화화상자료, 16) 의궤도설자료, 17) 보소당인존 인장으로 세분화되어 서비스된다. ‘음성자료’ DB는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방언자료집, 한국민요대관으로 나누어 서비스하는데 이는 민화, 설화, 방언, 민요 등의 녹취자료를 구축한 것이다. ‘사전용례’ DB는 한국사기초사전, 한문용어용례, 한자자형전거로 세분화하였고, ‘부가정보’ DB는 지명, 연대기, 생활야사, 척독류, 민간요법에 관한 것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시스템중 ‘고도서’ DB에서는 목록서지기술의 부정확성, 본문텍스트에 입력된 해당 작품의 장르와 필자의 오류, 원문입력의 오기 등이 지적되었는데 18) 이의 수정보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통합목록과 공동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

문중고문서의 ‘고문서’ DB는 장서각에서 서지를 검색하면 고문서정리(안)에 의해 구축되어 있지만,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에서는 고서 단행본 MARC 형식으로 변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어 재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6)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시 수집했던 한국문화 관련 필름자료 90,000컷 중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에 사용하지 않은 필름 28,350컷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다. 사진자료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7) 의궤류의 고도서에는 궁중의 의식에 쓰였던 각종 물품, 도구, 복장 등이 정교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왕의 행렬을 묘사한 반차도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궁중의 의식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들 그림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0, 887건의 물품도와 반차도가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18) 정재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 27(2006), 65-79.

KORMARC -고문서용- 표준안이 제정되어야 개선될 수 있다.

### 3.4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sup>19)</sup>은 역사관련 전문기관이 전문센터로서 참여하여 구축한 역사자료 DB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전문센터로서 참여하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독립기념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시민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통합서비스를 위해 '디렉토리서비스'에 통합디렉토리서비스와 편년자료서비스로 세분하였다. 통합디렉토리서비스는 다시 고도서, 고문서, 도서, 문서, 연속간행물, 고전국역서, 연구자료, 목록·해제, 인물, 지도, 사진, 연표, 멀티미디어자료, 유물·유적, 금석문자료로 나누었다. 편년자료서비스는 조선시대편년사서와 근현대신문자료로 나누고 조선시대편년사서는 조선왕조실록을 태조부터 순종까지의 기사를, 근현대신문자료는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국역사분야의 포털로서 기능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지식사업에 참여하는 11개 기관은 몇 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메타데이터에 의한 검색서비스에 합의하고, 통합메타데이터(안)과 통합디렉토리(안)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작성하여 각 기관과 협의하였다. 협의결과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화의 업무표준을 위해 World Wide Web 상에서 Unicode 3.0을 사용하며, 데이터교환을 위해 XML형식으로 작성·추출·전송하며

19) <http://www.koreanhistory.or.kr/>

통합 메타데이터의 DTD를 작성하고 더블린 코어에 기반을 둔 11개 요소를 사용하며, 연계 프로토콜은 OAI(Open Archives Initiative)를 사용하도록 하였다.<sup>20)</sup>

이에 통합디렉토리 구성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3단계 분류법을 사용하고, 최종데이터는 서명·기사단위로 분류를 코드화하여 통합메타데이터 요소에 포함시켰다.<sup>21)</sup> 또한 기관별 특성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디렉토리 분류 수정이 용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조정에 대비하였다. 고도서의 경우 사부분류법에 따르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고, 고문서의 경우 중분류를 없애고 문서 종류만을 표기함으로써 논쟁을 피하였다. 기왕에 서비스되던 기관별 디렉토리는 그 항목을 살려둠으로써 기관의 요구에 부응코자 하였다. 이러한 분류법은 학술적인 분류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며, 관리자 중심 웹 구성 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웹 체제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합시스템에서는 부분적으로 전문센터간의 관련 데이터의 제공과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DB를 상호 교환 또는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22)</sup>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DB’는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수집·소장처별로 나누어 서비스하는데 각 항목으로 검색하면, 서지목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원문이미지도 마이크로필름을 이미지로 스캔하여 구축되어서 인터넷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해상도 높은 칼라 원문이미지가 거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목록은 MARC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고 원문이미지도 칼라이미지로 원문에 가깝게 구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DB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메

20) 한국전산원, 『지식정보자원 검색 표준』 (2004. 4).

한국전산원, 『2004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검색기능 및 메타데이터 구축지침』 (2004. 4).

국사편찬위원회, 『2004년도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연계사업 워크샵』 (2004. 6. 15.~16).

21)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2) 이정희, “국사편찬위원회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과제,” 『한문교육연구』 27(2006), 115-144.

뉴항목에서 연계기관의 사이트로 들어가 국편의 자료를 찾도록 되어 있어 검색이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URL 방식으로 링크되어 상호 연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5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은 ‘남명학’, ‘경상우도지역문집류’, ‘경상우도지역기록류’, ‘경상우도지역고문서류’, ‘경상우도지역책판류’, ‘도서관서지상세정보’ 등을 종합 DB로 구성하여 디렉토리검색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남명학’은 남명조식관련기록류,<sup>23)</sup> 산해사우연원록(山海師友淵源錄),<sup>24)</sup> 덕천서원원생록(德川書院院生錄),<sup>25)</sup> 산해연원록(山海淵源錄),<sup>26)</sup>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sup>27)</sup>으로 세분하였다. 이들 DB에서는 각 자료의 서지, 원문, 텍스트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서지는 KORMARC-고서용-에 의해 작성되었고, 원문은 서지에서 URL방식으로 링크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우도지역문집류’는 1553건 문집의 서지, 원문, 텍스트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텍스트는 극히 일부의 자료만이 제공되고 있다. ‘경상우도지역기록류’는 경상우도지역 관련 郡誌, 邑誌, 족보 등의 119건의 기록에 대한 서지, 이미지, 텍스트를 제공한다. ‘경상우도지역고문서류’는 문천각 및 경남지역 개인 및 문중 소장 고문서의 서지, 원문, 텍스트 정보를 제공한다. ‘경상우도지역책판류’는 경남지역 고인쇄에

---

23) 조선 중기 경상우도 지역의 학문을 주도하였던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문헌 DB로, 남명 조식의 문집인 『남명선생문집』의 여러 판본과 『學記類編』, 그리고 年譜, 門人錄, 덕천 서원 관련 기록 등을 제공한다.

24) 1636년 无悶堂 朴緜(1583-1640)이 편찬한 『山海師友淵源錄』에 수록된 남명의 從遊人 24명, 문인 50명의 인적사항과 문집 및 관련 기록을 제공한다.

25) 『德川書院院生錄』에 수록된 남명의 문인 및 사숙인 372명의 인적사항과문집 및 관련 기록을 제공한다.

26) 1894년에 간행한 『山海淵源錄』에 수록된 남명의 종유인과 문인 111명의 인적사항과 문집 및 관련 기록을 제공한다.

27) 擔軒 河禹善(1894-1975)이 편찬 간행한 『德川師友淵源錄』에 수록된 남명의 종유인과 문인 및 사숙인 249명의 인적사항과 문집 및 관련 기록을 제공한다.

사용된 문천각소장 책판의 이지지파일 정보를 제공한다. ‘도서관서지상세정보’는 3152건에 대한 목록 및 소장정보를 제공한다.

남명학교문헌시스템은 한자의 결락과 입력의 오류, 해당이미지와 텍스트의 착락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관련 문헌 중에서 타 기관에서 구축된 것은 타 기관안내기능을 추가하여 타 기관과 연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기관의 메인화면으로 연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연계방식이 실제 검색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연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28)</sup>

‘경상우도지역고문서류’ DB의 경우 고문서의 목록이 KORMARC-고서용-에 의해 작성되어 고문서 목록으로 변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ORMARC -고문서용- 표준안의 제정되어야 개선될 수 있다.

#### 4. 민간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시스템,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간의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고문헌자료의 정리를 위한 표준화와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문헌의 정리를 위해 고문헌정리의 표준화에 기여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소장 역사자료정보화사업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 11월 13일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및 형식(KS X 6006-6)을 KS X 6006-6으로 제정·공포되었다.<sup>29)</sup> 국립중앙도서관

28) 최 식, “문천각 고문헌 전산화의 성과와 한계,” 『한문교육연구』 27(2007), 31-54.

29)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고서용-(KS X 6006-6)』 (서울: 국립중앙

은 국내 495개 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정보유통기관을 연결하는 도서관 정보망을 형성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및 목록DB 구축에 주력하였고, 1995년부터 소장 고서에 대한 원문DB 구축을 시작하여 2004년 말에 복본을 제외한 모든 고서원문DB가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한편 2004년 3월부터는 한국 고전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협의체인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를 결성하고 2005년부터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과 2006년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고문서학회가 추진하여 완성한 고문서용 한국고문서기술규칙(안)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을 KS로 제정하여 고문서정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KORMARC-통합서지용-이 적용되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각 컬렉션별로 자세한 목록규칙 및 목록형식이 표준화 되면서 통합목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지도, 금석문, 목판 현판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나가는 데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의 통합과 공동 활용을 위해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16개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갖추었다. 현재는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활성화와 역사자료 통합체제 구축 및 표준화에 진력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자료정보화사업에서도 URL서비스는 856tag에 가입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sup>30)</sup>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소장 역사자료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적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4년에 10개 대학, 2005년에 19개 대학, 2006년에는 22개 대학이 참여였다. 그 이후는 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 사업의

---

도서관, 2000).

30) 강순애 외,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5.

성과는 고문헌의 전자적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학이 구축한 고문헌 DB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통합서비스하고<sup>31)</sup>,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고문헌 서지DB를 공동으로 구축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문헌종합 목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고문헌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련 분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비용을 절감하며, 역사자료의 집결을 통한 연계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역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며, 정보 및 지식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려는 것이다.<sup>32)</sup>

이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구축하는 기관들을 다시 연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새로운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문헌의 서지DB와 원문의 text DB의 구축에서 정확한 서지정보와 원문의 입력 및 오류의 정정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기관이 서지정보를 정확한 입력해야 하는 것은 통합목록의 구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KORCIS에서 마크 반입시 250태그와 300태그의 서지정보를 부호화정보필드(008)에 해당 값으로 바꿔주게 된다. 하지만 서지정보가 자관기준에 의해 표현되었거나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誤記가 있을 경우 부호화정보필드(008)를 생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250태그에 ‘木活字本(全史字)’로 잘못 표현했을 때 부호화정보필드(008)값이 변환되지 못하며, 판식 魚尾의 표현이 ‘花紋魚尾’로 부정확하게 표현되었을 때 부호화정보필드(008)값이 변화되지 못한다. 데이터 관별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실물을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반입된 MARC에 의해 이루어지지 때문에 각 기관에서 구축된 목록에 오기가 있으면 실제로는 중복 DB인데 신규로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sup>33)</sup> 각 기관이 목록서지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통합구축을 하

31) 대학에서는 대학 내 모든 자료의 통합서비스를 위하여 메타데이터를 고서 MARC로 구축하고 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고서원문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DC(Dublin Core)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32) 강순애 외,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58-60.

33) 강순애, “한국 고문헌 정리에 있어서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기술규칙 및 형식의 적용과

게 되면 서지의 표준화와 서지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원문의 text DB 구축에 있어서 제기된 것을 보면,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서는 한자결락과 입력의 오류, 해당이미지와 텍스트의 착락이 지적되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에서는 본문텍스트에 입력된 해당 작품의 장르와 필자의 오류, 원문입력의 오기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유교넷(Ugyo net)시스템에서는 구두를 잘못 끊은 경우와 한자 입력의 오류가 지적되었다. 이는 한문 text의 해독이 가능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셋째, 고문헌의 DB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문헌의 DB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고 각 기관별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국가 및 각 기관이 가장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문헌정리의 여러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간의 자원공유와 광범위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성공한 경우는 중국의 역사문화의 디지털화와 인력양성이다. 중국은 교육부와 재정부가 책임지고 고적정리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직접 지출하여 분배하고, 100개 중점학과의 과학연구 기지를 건립하였으며, 45세 이하의 젊은 학술분야 핵심 인원들을 길러냈다. 고적정리의 현대화를 위해 고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강화된 탐색기능을 확장하여 자원의 공유와 광범위한 이용을 모색하고 있다.<sup>34)</sup>

넷째,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고문헌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즉 가칭 “Korean Old Books Information Network(이하 KOBIN이라 칭함)”

---

실제,” 『고전적』 3(2007), 39-44.

34) 劉薔, “중국의 전국대학 고적정리 및 사료편찬의 현황- 중국의 전국대학 고적정리 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고찰,” 『제2회 동아시아 사료연구편찬기관 국제학술회의』 (동경대학 사료편찬연구소. 2004. 12.17-18), 53-55.

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고문헌의 중심센터가 되어 고문헌의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발주, 표준화, 기관간의 연계, 저작권보존, 협력문제 등의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산하기관으로는 고문헌시스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을 연계하고, 각 지방은 그 지방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고문헌 기관들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KORMARC-고서용 및 고문서용, 기타 자료들의 표준화 제정과 통합목록의 구축을, 국사편찬위원회는 Metadata 개발과 자료 호환 및 한자처리에 관한 부분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규장각은 자료의 해체와 내용 및 연구를 책임지고 각 기관이 책임진 부분들을 공유해나가면 거점기관들과도 각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관간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기관간의 자원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칭의 기구인 “KOIN”에서 세계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국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한국의 민간 소장 고문헌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 소장 고문헌의 정리와 DB구축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학자료보존회와 문화재관리국이 민간소장 고문헌의 조사와 한국전적 종합목록 사업을 주도하였다. 국학자료보존회는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개인 소장가가 지니고 있는 목록을 조사하여 완성책자로 발행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어 한국고문헌조사목록 제1집부터 9집까지 발행되었다. 이 사업은 더 구체화되어 목록 DB와 원문구축사업으로는 진전되지 않았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어 발전하면서 일반 고문헌보다는 국가문화유산종합시스템의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도에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하 한고목으로 함)을 개발하여, 2005년~2007년 현재 416,397건의 고문헌 목록을 구축하였다. 국내 민간 소장자의 고문헌 자료의 경우는 2006년 성암고서박물관의 목록 3,301건을 구축하였고, 2007년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 고서 1,300책을 구축하였으며, 이들 목록은 한고목에 종합목록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민간 고문헌을 수집하고 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경상대 문천각은 구축된 DB의 일부를 한고목의 종합목록에 제공하여 통합 연계하고 있다. 해외 여러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영인조사 사업을 통해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6개 기관으로부터 2,352종 6,884책을 영인하였다.

셋째, 한국국학진흥원은 문중 및 개인 소장자로부터 국학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하는 '위탁관리방식'에 의해 고서, 고문서, 목판 등 약 21만 여점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0년부터 6차 년도에 걸쳐 구축한 소장자료 DB현황을 보면, 문집자료는 1,328종 3,503책이며, 도산서원 및 명문가 기탁 고문서 27,897종 40,607점, 일기류 599종 등이 DB로 구축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넷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국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원, 향교, 사찰, 문중,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였고, 이중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고문서집성」 87권을 간행하였으며, 1997년부터 고문헌 기증·기탁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기증·기탁된 자료는 28개 문중에 27,000여점에 이르고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개 분야의 한국학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장서각에 수장된 고문서 자료와 1990년대 고문서 수집 사업으로 수집한 전국 명가 소장 고문서 중 25개 가문의 고문서 자료를 디지털화 하였다. 장서각 소장 고문서는 4,575점의 원문이미지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전국 명가의 고문서는 25개 가문 16,101점의 원문이미지, 8,120점의 원문텍스트, 9,294점의 해제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다.

다섯째, 국사편찬위원회는 1999년 '한국역사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착수되었

으며 2000년 9월 정보통신부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역사자료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편은 마이크로필름을 총 18,435롤 342,442건을 구축하였는데, 그중 고문헌과 관련된 것은 고문서목록 64,208, 고서목록 15,275, 귀중본목록 89, 대마도중가문서목록 27,620 총 107,192의 목록DB가 구축되어 있다. 국편이 운영하는 한국사 DB에서는 수집·소장처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원문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문천각은 경남지역 여러 문중에서 기증한 2만5천여 점의 고문헌과 2만 여권의 한적 영인본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위탁방식의 고문헌이 정리 중에 있다. 문천각에서 전산화한 고문헌 자료는 ‘남명학교문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명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2)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KSC5601 기반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KOLIS)에 구축 운영 중인 고전적종합목록 DB를 유니코드 기반으로 변환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통합목록시스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각 기관의 정확한 목록기술이 및 기관간의 업무협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구축된 원문, 해제 등의 연계 및 원문의 구축여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문서의 DB의 기술 및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다. 이의 해결방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시스템상에서 원문, 해제 서지를 통합하여 표준화를 주도하고 고문서기술규칙 및 형식의 표준안을 KS로 제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유교넷(Ugyo net)시스템은 2000년부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지원과 자체예산 사업을 통해 꾸준히 축적해 온 유교문화 관련 다양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학술정보 및 일반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되는 시스템이다. 전문적인 학술정보는 ‘유교기록자료관’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유교넷시스템에서는 text DB 구축에 있어 구두를 잘못 끊은 경우와

한자 입력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어 정확한 원문의 입력과 오류의 정정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된 고문헌의 DB는 유교넷시스템에서는 이용이 되지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통합 검색이 되질 않는다. 한고목에서 통합검색이 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계시스템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표준화를 통한 통합검색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관련 전문기관이 전문센터로서 참여하여 구축한 역사자료 DB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전문센터로서 참여하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18개 기관이다. 이 시스템은 '디렉토리서비스'에 통합디렉토리서비스와 편년자료서비스로 세분하여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통합시스템에서는 부분적으로 전문센터간의 관련 데이터의 제공과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DB를 상호 교환 또는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이 필요하다. 서지목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원문이미지도 마이크로필름을 이미지로 스캔하여 구축되어서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상도 높은 칼라 원문이미지가 거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목록은 MARC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고 원문이미지도 칼라이미지로 원문에 가깝게 구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DB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메뉴항목에서 연계기관의 사이트로 들어가 국편의 자료를 찾도록 되어 있어 검색이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URL 방식으로 링크되어 상호 연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은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은 '남명학', '경상우도지역문집류', '경상우도지역기록류', '경상우도지역고문서류', '경상우도지역책판류', '도서관지상세정보' 등을 종합 DB로 구성하여 디렉토리검색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원문의 text DB의 경우 한자의 결락과 입력의 오류, 해당이미지와 텍스트의 착락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관련 문헌 중에서 타 기관에서 구축된 것은 타 기관안내기능을 추가하여 타 기관과 연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는 해당기관의 메인화면으로 연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연계방식이 실제 검색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연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상우도지역고문서류' DB의 경우 고문서의 목록이 KORMARC-고서용-에 의해 작성되어 고문서 목록으로 변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ORMARC-고문서용- 표준안의 제정되어야 개선될 수 있다.

3)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간의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문헌자료의 정리를 위한 표준화와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고문서학회가 추진하여 완성한 고문서용 한국고문서기술규칙(안) 및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을 KS로 제정하여 고문서정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KORMARC-통합서지용-이 적용되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각 컬렉션별로 자세한 목록규칙 및 목록형식이 표준화 되면서 통합목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지도, 금석문, 목판 현판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나가는데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적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구축하는 기관들을 다시 연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새로운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문헌의 서지DB와 원문의 text DB의 구축에서 정확한 서지정보와 원문의 입력 및 오류의 정정을 통한 컨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립이 통합목록의 구축과 서지DB의 공동활용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정확한 서지정보 입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문의 text DB의 구축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문 text의 해독이 가능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

셋째, 고문헌의 DB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고문헌의 DB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고 각 기관별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문헌정리의 여러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간의 자원공유와 광범위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기관의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고문헌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즉 가칭 “Korean Old Books Information Network(이하 KOBIN이라 칭함)”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고문헌의 중심센터가 되어 고문헌의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발주, 표준화, 기관간의 연계, 저작권보존, 협력문제 등의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산하기관으로는 고문헌시스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을 연계하고, 각 지방은 그 지방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고문헌 기관들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순애. “한국 고문헌 정리에 있어서 고서용 한국문헌자동화기술규칙 및 형식의 적용과 실제.” 『고전적』 3(2007). 39-44.
- 강순애. “한국의 지방사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4집(2006). 5-35.
- 강순애 외.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1-139.
- 강순애. 「대학소장 역사자료의 통합목록과 원문디지털화의 구현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M 2004-20, 2004. 1-42.

- 강순애. “한국고문서의 정리현황과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6집(2003), 51-83.
- 강순애. “한국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 제31권 제4호(1997)』, 83-112.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고서용-(KS X 6006-6)』.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0.
- 국립중앙도서관. 2006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KOR CIS) 구축 완료보고회. 2006.
- 국사편찬위원회, 2001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역사분야 정보화전략계획 (ISP)수립사업 완료보고서. 2002.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운영방안 워크샷』 자료. 2003.
- 김경미. “국내 고문헌처리를 위한 한국형 EAD 개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솔미, 이해옥. “인터넷 자료에의 기술과 접근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비교분석.” 『1997년도 한국추계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1997), 25-37.
- 김태수.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문헌정보처리연구회시리즈 8. 메타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 南權熙. “記錄物の 書誌記述動向.” 『2001년도 국학연구지원사업연구결과보고 한국고문서정리표준화 연구』 (2002), 53-82.
- 朴秉濠. “고문서 자료의 수집·정리문제.”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1호(1992), 3-13.
- 신익철. “고서용 KORMARC의 XML변화모듈 구현에 관한 연구.” 漢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 李鍾默. “藏書閣 및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 국내외 한국학 자료의 보존실태와 전망』. 37-63.
- 정구복. “한국고문서의 특징과 고문서정리표준화안의 기초적 연구.” 2001년도 국학연구지원사업연구결과보고 한국고문서정리표준화연구 (2002), 15-33.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1-7.

한국전산원. 2004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 3차 회의 결과 통보. 지식자원관리팀-1391. 2004.

한국전산원. 지식정보자원 검색 표준 . 2004.

한국전산원. 2004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검색기능 및 메타데이터 구축지침 . 2004.

Furrie, Betty. "Understanding MARC bibliographic: machine-readable cataloging." *Library of Congress, 2000*. Part IV: Where do MARC records originate.